

2020. 5.30. 경찰 1차 채용시험  
영 어

자료제공 : 샬리정 교수

www.kimcodi.kr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lthough doctors struggled to contain the epidemic, it has swept all the world.

- ① include    ② suffer from  
③ prevent the spread of                      ④ transmit

**해설** ▶ contain (좋지 않은 일을) 방지하다[억제하다], ...이 들어[함유되어] 있다, (감정을) 억누르다[참다]

**해석** ➔ 비록 의사들이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그것은 전 세계를 휩쓸었다.

## 2 다음 밑줄 친 표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f you take risks like that you'll wind up dead.

- ① blow up    ❷ end up  
③ make up    ④ use up

**해설** ▶ wind up (연설 · 모임 등을) 마무리짓다  
blow up 폭발하다, 터뜨리다 end up 결국 ~하게 되다  
make something up ~을 이루다, 형성하다, 구성하다, 보상하다  
use up 다 써버리다

**해석** ▶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 결국 죽게 될 거야.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detectives \_\_\_\_\_ some clues of the hit-and-run accident and could successfully arrest the real criminal.

- ① obliterated                      ② distorted  
③ complimented                  ④ scrutinized



## 6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m feeling sick.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 ② Most of the suggestions made at the meeting was not very practical.
- ③ Providing the room is clean, I don't mind which hotel we stay at.
- ④ We'd been playing tennis for about half an hour when it started to rain heavily.

### 해설

- ① 감각동사 feel 뒤에 형용사 보어를 취했다. (2형식)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 ② most of A 는 A에 수일치 한다. 따라서 suggestions이므로 was가 아니라 were로 한다.  
made는 과거 분사로 적절하다.
- ③ providing 주어+ 동사 는 접속사로 '만약 ~이면'이라는 뜻이다.  
which는 의문형용사로 뒤에 명사를 꾸며준다. 뜻은 '어떤 호텔'이라는 뜻이다. stay는 자동사로 stay at a hotel처럼 전치사가 필요함으로, at이 있는 것 또한 적절하다.
- ④ when이하는 과거시제이고, for about half an hour로 기간을 나타내므로 본문의 시제가 과거완료진행 (had been playing)으로 쓰인 것은 적절하다.

## 7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 ② Little I dreamed that he had told me a lie.
- ③ Written in plain English, the book has been read by many people.
- ④ When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I couldn't help but fall in love with her.

### 해설

- ① [과거완료 관용표현] '~하자마자 ... 하다'  
주어 had no sooner p.p.~ than 주어 + 과거  
[도치] No sooner had 주어 p.p.~ than 주어 + 과거
- ② 「부정부사가 문두에 온 경우」의 문제  
부정부사 「never, hardly, no sooner, rarely, scarcely, not until, little, not only」등이 문두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다.  
따라서 Little did I dream~ 으로 한다.
- ③ 분사구문 Written in plain English의 의미상의 주어는 book이 된다. 책이 “쉬운 영어로 쓰여 있어서” 라고 수동해석 되므로 written 과거분사로 쓰인 것은 적절하다.
- ④ cannot(could not) help but 동사원형 ~하지 않을 수 없다(없었다)

## 8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Oh, I've forgotten my phone again!  
B: Typical! You're always forgetting your phone.
- ② A: Is your shirt inside out? I see the seams.  
B: Actually, they're supposed to show.

- ③ A: Where can I get a cheap computer?  
B: Shopping online is your best bet.
- ④ A: Would you like some strawberry shortcake?  
B: Sure, help yourself to more.

**해설**

- ① A: 아, 또 핸드폰을 잊어버렸구나!  
B: 늘 그렇잖아! 넌 항상 핸드폰을 잊어버리잖아.  
typical! 늘 하는 식[행동]의, 전형적인, 보통의
- ② A: 너의 셔츠가 뒤집혔니? 솔기가 보인다.  
B: 사실, 그들(솔기)은 원래 보이는 거야. (보이기로 디자인 된거야)  
seam 솔기
- ③ A:싼 컴퓨터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  
B: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best bet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책[수단]
- ④ A: 딸기 쇼트케이크 드시겠습니까?  
B: 물론이죠, 더 많이 드십시오.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9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How many bottles of wine should I prepare for tonight's party? I heard there will be many guests.  
B: The more, the better. Unfortunately, however, I won't be able to be with you at the party because of the urgent matters in my office tonight. Instead, \_\_\_\_\_?  
A: Of course! You are always welcome to my world.

- ① can you give me a raincheck for this  
② will you give my best regards to them  
③ shall I go home  
④ are you being waited on

**해설**

- ① 다음번에 가도 될까? raincheck 다음번에 기약하다 (우천 교환권)  
② 그들에게 안부 전해 주시겠습니까?  
Give my best regards to ...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③ 집에 가도 될까요?  
④ 식사 시중 받고 계세요?  
wait on somebody (특히 식사) 시중을 들다

**해석**

- A: 오늘 밤 파티에는 와인을 몇 병 준비해야 할까? 손님이 많을 거라고 들었어.  
B: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 밤 내 사무실에서 급한 일 때문에 너와 함께 파티할 수 없을 것 같아. 대신 다음번에 가도 될까?  
A: 물론이지! 넌 언제나 내 세계에 환영이야.

## 10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야!  
→ They're so kind people!
- ② 그녀는 곰 인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인형 눈이 양쪽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 She had a teddy bear, both of whose eyes were missing.
- ③ 가장 쉬운 해결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 The most easiest solution is to do nothing.
- ④ 애들 옷 입히고 잠자리 좀 봐 줄래요?  
→ After you've got the children dress, can you make the beds?

**해설** ① so는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며, 명사를 취할 시 어순은 'so 형용사 a 명사'이다. 이때 명사는 '가산 단수 명사'이다. 따라서 people이 복수명사이므로, so kind people은 적절치 않다. 반면 such는 'such a 형용사 명사'의 어순이며, 이때 명사는 복수 명사가 와도 된다. 따라서 'such kind people'로 고치자.

② 관계사절은 적절하다. 원래 문장이 both of its eyes were missing 이어야 하므로 소유격으로 받은 것은 적절하다. 또한 missing은 '없어진'이란 뜻이다.

③ most를 뺀다. easy의 최상급은 easiest로 한다.

④ dress를 '~에게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옷을 입다라고 할 때는 "be dressed"로 한다. got은 사역 동사이다.

make the[one's] bed 잠자리를 정돈하다, 이불을 개다

##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magine that after studying word pairs such as red/blood and food/radish, you are given red as a cue and recall that blood went with it. This act of recall strengthens your memory of the two words appearing together, so that next time you are given red, it will be easier for you to recall blood. Remarkably, however, recalling that blood went with red will also make it more difficult later to recall radish when given food! When practicing red/blood, it is necessary to suppress retrieval of recently encountered "red things" other than blood, so that your mind is not littered with irrelevancies that could interfere with the recall of the word you seek. But there is a cost to suppressing retrieval of unwanted items such as radish: they are less accessible for future recall, even to a cue (food) that would seem to have nothing to do with "redness."

- ①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tudying Word Pairs
- ② The Art of Matching Word Pairs
- ③ The Importance of Recalling Word Pairs
- ④ The Proper Way of Practicing Word Pairs

**해설** 단어를 쌍으로 외울 때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장점도 있지만, however 뒤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 하므로 제목은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tudying Word Pairs (쌍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장점과 단점)이 적절하다.

**해설** ▶ ‘red/blood’와 ‘food/radish’와 같은 단어 쌍을 학습한 후에 ‘red’를 단서로 제공받아 ‘blood’가 그것과 함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낸다고 상상해 보라. 이 회상 행위는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났던 기억을 강화시켜 주므로 다음에 ‘red’가 주어지면 ‘blood’를 떠올리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blood’가 red와 함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나중에 ‘food’가 제시될 때 ‘radish’를 기억해 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red/blood’를 연습할 때,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이 찾는 단어의 상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관한 것들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피 이외의 최근에 맞닥뜨린 ‘빨간 것들’의 회상을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radish’와 같은 원치 않는 항목의 회상을 억누르는 것에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상기할 경우, 심지어 ‘빨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단서(‘음식’)에도 덜 쉽게 떠오른다.

**어휘** ▶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accessible 접근[이용] 가능한 retrieval 되찾아 오ム litter 어지럽히다 irrelevance 무관함, 무관한 것

## 12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When the adversity is threatening enough or comes without warning, it can unbalance the leader at a single stroke.

There are times when even the best leaders lose their emotional balance. (㉠) Leadership brings with it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in times of serious adversity, brings emotional confusion and strain. (㉡) In this sense responsibility is like a lever, which can upset a leader's emotional balance when adversity presses down hard on one end. (㉢) Even a leader as great as Lincoln was floored more than once in this way. (㉣) Other times the effect is cumulative, coming after a period of sustained high tension—of pressure on one end and resistance on the other—until finally the leader's equanimity begins to give way. The point is that every leader had their emotional limits, and there is no shame in exceeding them.

① ㉠

② ㉡

③ ㉢

④ ㉣

**해설** ▶ Even a leader as great as Lincoln was floored more than once in this way.에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이 말하고 있는 것이 주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 앞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해야 하므로, ㉣이 답이 된다.

**해설** ▶ 역경이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경고 없이 올 때, 리더의 균형을 단번에 깨질 수 있다. 최고의 지도자라도 정서적 균형을 잃을 때가 있다. (㉠) 리더십은 그것에 책임감을 가져오고, 책임감은 심각한 역경의 시기에 정서적 혼란과 긴장을 가져온다. (㉡) 이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레버와 같아서 역경이 한쪽 끝을 세게 누를 때 지도자의 정서적 균형을 뒤엎을 수 있다. (㉢) 링컨만큼 위대한 지도자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무너졌다. (㉣) 지도자의 평정심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한쪽으로는 누르는 힘이, 다른 한쪽으로는 저항하려는—지속되는 높은 긴장의 시기가 온 이후에, 다른 때에는 이 영향은 누적된다. 마침내, 요점은 모든 지도자들이 감정적인 한계를 가졌고, 그것을 넘어서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휘** ▶ adversity 역경 confusion 혼돈, 당혹 strain 부담, 중압 sustained 유지되는 equanimity 침착, 평정

###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ientists hope to someday establish beyond a doubt that aging and all the nefarious things that go with it can be indefinitely postponed simply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and calories we consume. Take note that in the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 maintaining an ideal weight may not be enough. Studies have shown that the risk of Alzheimer's disease is more closely linked to caloric intake than to weight or body mass index (BMI). This means that a junk food junkie who is blessed with a high metabolic rate that keeps her from gaining weight may still be at a higher risk for developing a memory problem. If we consider the logic that explains how caloric restriction exerts its beneficial effects on the body and mind, this makes a lot of sense. The amount of age-accelerating \*oxygen free radicals generated from our diet is related to the amount of calories we consume, not to our weight. Thus a person with a high metabolic rate who consumes greater calories may actually be producing more harmful forms of oxygen than someone with a slower metabolic rate.

\*oxygen free radicals 활성 산소

- ① The Relation between BMI and Alzheimer's Disease
- ② The Instruction of How to Reduce the Risk of Alzheimer's Disease
- ③ The Influence of Ingesting Calories on the Body and Mind
- ④ The Side Effect of Having Junk Food on Human Metabolism

**해설** → Studies have shown that 이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에서 신진대사를 보다 칼로리 섭취량이 알츠하이머 병에 더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뒷부분 thus에서도 칼로리 섭취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유해 형태 산소를 만들어 낸다고 했으므로, 글의 제목은 3번 "The Influence of Ingesting Calories on the Body and Mind(칼로리 섭취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하다.

**해석** → 과학자들은 언젠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칼로리의 양을 줄임으로써 노화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한 것들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규명하기를 바란다. 알츠하이머병 예방에서는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체중이나 체질량지수(BMI)보다 칼로리 섭취와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몸무게를 늘리지 않게 하는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진 정크 푸드 중독자가 기억력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여전히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로리 제한이 몸과 마음에 어떤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많은 이치에 맞는다. 우리의 식단에서 생성되는 노화산소 활성산소의 양은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대사율이 높은 사람은 사실 대사율이 더 느린 사람보다 더 해로운 형태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휘** → nefarious 범죄의, 비도덕적인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take note 주목하다 caloric 칼로리의 intake 섭취 junkie 중독자 radical 과격파



##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fe is full of hazards. Disease, enemies and starvation are always menacing primitive man. Experience teaches him that medicinal herbs, valor, the most strenuous labor, often come to nothing, yet normally he wants to survive and enjoy the good things of existence. Faced with this problem, he takes to any method that seems adapted to his ends. Often his ways appear incredibly crude to us moderns until we remember how our next-door neighbor acts in like emergencies. When medical science pronounces him incurable, he will not resign himself to fate but runs to the nearest \*quack who holds out hope of recovery. His urge for self-preservation will not down, nor will that of the illiterate peoples of the world, and in that overpowering will to live is anchored the belief in supernaturalism, \_\_\_\_\_.

\*quack 돌팔이 의사

- ① and the number of its supporters has increased dramatically
- ② which caused ancient civilizations to develop into modern ones
- ③ which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medical science
- ④ which is absolutely universal among known peoples, past and present

**해설** → 글의 중반 이후부터, 원시인뿐만 아니라 (현대)인간도 자기 보전에 대한 행동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Often his ways appear incredibly crude to us moderns until we remember how our next-door neighbor acts in like emergencies,) 또한 같은 맥락으로 글의 후반부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줄지 않으며, 이는 원시인, 문맹인, 현재, 과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므로 답은 4가 적절하다.

**해석** → 인생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질병, 적, 굶주림은 언제나 원시인을 위협하고 있다. 경험은 그에게 가장 격렬한 노동인 약초, 용맹은 종종 수포로 돌아가지만, 보통 그는 생존하고 존재의 좋은 점을 즐기기를 원한다.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방법이라도 택한다. 종종 그의 방식은 우리가 옆집 이웃이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하기 전까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해 보인다. 의학이 그에게 치료할 수 있다고 선언할 때, 그는 운명에 맡기지 않고 회복의 희망을 품고 있는 가장 가까운 돌팔이에게 달려갈 것이다. 그의 자기보존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 문맹민족의 것도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 대한 믿음은 초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어휘** → menacing 위협적인 valor 용기, 용맹 strenuous 힘이 많이 드는, 몹시 힘든, 격렬한 resign 사직하다, 물러나다 hold out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되다[없어지지 않다]  
self-preservation 자기 보호 illiterate 문맹의 overpowering 아주 강한, 심한  
be anchored 뿌리박고 있다



**15** 다음 빈칸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study that measured participants' exposure to thirty-seven major negative events found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lifetime adversity and mental health. High levels of adversity predicted poor mental health, as expected, but people who had faced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were healthier than those who experienced little adversity, suggesting that moderate amounts of stress can foster ⑦ \_\_\_\_\_. A follow-up study found a similar link between the amount of lifetime adversity and subjects' responses to laboratory stressors.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were predictive of the greatest ④ \_\_\_\_\_. Thus, having to grapple with a moderate amount of stress may build ⑥ \_\_\_\_\_ in the face of future stress.

- ① resilience                                  ② impression  
③ creativity                                 ④ depression

**해설** ➡ resilience 회복력 impression 인상, 느낌 감명 creativity 창조성 depression 우울증

**해석** ▶ 37개의 주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노출을 측정한 한 연구는 평생의 역경과 정신 건강 사이의 곡선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높은 수준의 역경은 예상대로 나쁜 정신건강을 예측했지만, 중간 정도의 역경을 맞았던 사람들은 작은 역경을 겪은 사람들보다 건강했고,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후속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평생 역경의 양과 실험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피실험자의 반응 사이에, 중간 수준의 역경은 가장 큰 회복력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와 씨름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스트레스 앞에서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다.

**어휘** ➡ curvilinear 곡선으로 이뤄진 foster 조성하다 predictive 예측의 grapple 붙잡고 싸우다

**16** 다음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ost obvious salient feature of moral agents is a capacity for rational thought. This is an uncontested necessary condition for any form of moral agency, since we all accept that people who are incapable of reasoned thought cannot be held morally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⑦ \_\_\_\_\_, if we move beyond this uncontroversial salient feature of moral agents, then the most salient feature of actual flesh-and-blood (as opposed to ridiculously idealized) individual moral agents is surely the fact that every moral agent brings multiple perspectives to bear on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⑧ \_\_\_\_\_, there is no one-size-fits-all answer to the question “What are the basic ways in which moral agents wish to affect others?” Rather, moral agents wish to affect ‘other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upon who these ‘others’ are.

㉠

① However

② Furthermore

③ To put it briefly

④ In particular

㉡

That is

Otherwise

After all

Even so

**해설** ▶ ㉠ 앞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는 논쟁의 필요가 없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 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 이상의 영역을 넘어서면 인간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대조되는 'however' 가 적절하다.

㉡ 앞에는 인간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brings multiple perspectives)라고 말하고, ㉡ 뒤에도 같은 내용이 (~ no one-size-fits-all answer) 온다. 따라서 연결사는 “재진술” 순접의 연결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That is (즉)”이 적절하다.

**해석** ▶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우리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유형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필요한 조건이다. ㉠ 하지만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두드러진 특징을 넘어서면,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현재 살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각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 즉,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루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답은 없다. 오히려,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어휘** ▶ salient 현저한, 두드러진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uncontested 명백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un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없는 flesh-and-blood 현재 살아 있는, 현실의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ridiculously 우스꽝스럽게, 터무니없이 perspective 시각, 견지 bear 품다, 지니다 one-size-fits-all 널리[두루] 적용되도록 만든

## 17 다음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un is slowly getting brighter as its core contracts and heats up. In a billion years it will be about 10 percent brighter than today, heating the planet to an uncomfortable degree. Water ㉠ \_\_\_\_\_ from the oceans may set off a runaway greenhouse effect that turns Earth into a damp version of Venus, wrapped permanently in a thick, white blanket of cloud. Or the transformation may take some time and be more gentle, with an increasingly hot and cloudy atmosphere able to shelter microbial life for some time. Either way, water will escape into the stratosphere and be broken down by UV light into oxygen and hydrogen. Oxygen will be left in the stratosphere—perhaps ㉡ \_\_\_\_\_ aliens into thinking the planet is still inhabited—while the hydrogen is light enough to escape into space. So our water will gradually leak away.

㉠

① accumulating

② evaporating

③ flowing

④ seeping

㉡

misunderstanding

misleading

persuading

expelling

**해설** ▶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 evaporate 증발하다 / flowing 흐르는 / seep 스미다  
misunderstanding 오해, 착오  
misleading 오도하는, 오해시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현혹시키는, 혼동케 하는  
persuade 설득하다 / expelling 추방하다

**해석** ▶ 중심부가 수축하고 가열되면서 태양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 10억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10% 더 밝아질 것이며, 지구를 불편한 정도로 가열할 것이다.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은 지구를 축축하고, 두껍고 하얀 구름 담요에 영원히 싸여 있는 금성 버전으로 변화시키는 폭주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는 점점 더워지고 흐린 대기로 인해 미생물이 얼마간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 그 변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더 온화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물은 성층권으로 빠져나와 자외선에 의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것이다. 산소는 성층권에 남겨질 것이고 - 아마도 혼돈스런 외계인들이 이 행성이 아직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것이다 - 수소는 우주로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볍다. 그래서 우리의 물은 점차 새어 나갈 것이다.

**어휘** ▶ core 중심부 evaporate 증발시키다 set off 출발하다, 터뜨리다 transformation 변화 microbial 미생물의, 세균의, 세균에 의한 stratosphere 성층권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 18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kle and heel pain are the most common ailments seen by foot doctors, especially among runners and those who play sprinting sports, such as basketball or tennis.

- ㉠ Above all, it is most important to rest and take it easy until the injury fully heals.
- ㉡ While some injuries to the foot are serious and may require a trip to the doctor's office, most minor sprains can be treated at home.
- ㉢ They also suggest keeping the foot elevated when possible and making sure to wear comfortable shoes with plenty of support.
- ㉣ Sports physicians recommend icing the bruised area, gently stretching and massaging the foot, and taking anti-inflammatory drugs to help alleviate the pain.

① ㉢-㉡-㉠-㉣

③ ㉣-㉡-㉢-㉠

② ㉡-㉠-㉢-㉣

④ ㉡-㉢-㉣-㉠

**해설** ▶ ㉠, ㉡, ㉢은 같은 소재로 치료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also가 나오므로, 앞에 치료법이 제시된 이후에 들어가며, ㉠에 'above all'보아 치료법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순서가 된다. 따라서 답은 4가 된다.

- 해석** ▶ 발목과 발뒤꿈치 통증은 특히 달리기 선수들과 농구나 테니스와 같은 스프린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 의사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 ㉠ 무엇보다 부상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 발의 일부 부상이 심각해 진료실 방문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스프린트들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 ㉢ 그들은 또한 가능한 한 발을 올려놓는 것과 많은 지지대가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 ㉣ 스포츠의학과 의사들은 명든 부위를 얼음마사지하고, 발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염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어휘** ▶ ailment 질병 anti-inflammatory 소염제 alleviate 완화하다

## 19 글쓴이의 주장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insight is the result of restructuring of a problem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 stuck.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leading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to attain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The new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in finding a solution, thus producing the Aha! Experience.

- 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문제의 재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 ② 문제 해결 실패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통찰력 획득이 가능해진다.
- ③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을 때 그 문제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 ④ 대조되는 능력인 분석적 사고와 통찰력을 갖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 글쓴이의 주장은 뒷부분에 나타나 있다. 통찰력은 “문제의 재구성의 결과”이나, 이 문제의 재구성은 “성공하지 못한 시도”에 의해 야기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로 이어지면 이로 인해 문제의 재구성,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글쓴이는 “성공하지 못한 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쓴이의 주장은 ②이 적절하다.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해석** ▶ 몇몇 심리학자들은, 통찰력이란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중해서 꼼짝 못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정체 상태 후에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발견되어 지금까지 예측되지 않은 해결책으로 가는 다른 길로 이어진다. 문제의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사실은 경험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연구들은 통찰력이란 실제로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라는 점을 보

여주었다.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은 그 문제를 푸는 데 성공하지 못한 시도에 의해 야기되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정보는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색다른 시각에 기여해서 ‘아하’체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어휘** ➔ restructure 구조를 조정하다[개혁하다] heretofore 지금까지, 이전에는 attain 이루다, 획득하다 wander 거닐다, 돌아다니다 analytical 분석적인 perspective 관점, 시각

## 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was arguably the all-time greatest example of selection bias resulted in the embarrassing 1948 Chicago Tribune headline “Dewey defeats Truman.” In reality, Harry Truman trounced his opponent. All the major political polls at the time had predicted Thomas Dewey would be elected president. The Chicago Tribune went to press before the election results were in, its editors confident that the polls would be correct. The statisticians were wrong for two reasons. First, they stopped polling too far in advance of the election, and Truman was especially successful at energizing people in the final days before the election. Second, the telephone polls conducted tended to favor Dewey because in 1948, telephones were generally limited to wealthier households, and Dewey was mainly popular among elite voters. The selection bias that resulted in the infamous Chicago Tribune headline was accidental, but it shows the danger and potential power—for a stakeholder wanting to influence hearts and minds by \_\_\_\_\_ —of selection bias.

- ❶ encouraging others to hop on the bandwagon
- ❷ inspiring people to wag the dog
- ❸ instigating the public to be underdogs
- ❹ tempting American adults to be swing voters

**해설** ➔ Chicago Tribune의 선택 편향에 대한 한 사건을 보여주는 글이다. 빈칸에는 선택 편향된 결론으로 사람들은 시류에 편승하게 하여 이해 관계자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 거의 틀림없이 전대 미문의 가장 큰 선택 편향의 사례였던 것은 ‘Dewey가 Truman을 물리치다’라는 당황스러운 1948년 ‘Chicago Tribune’의 제1면 큰 표제의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는 Harry Truman이 그의 상대를 완파했다. 그 당시 모든 주요 정치 여론조사는 Thomas Dewey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Chicago Tribune’은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 전에 편집을 마감했는데, 왜냐하면 그 편집자들은 여론조사가 정확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통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로 틀렸다. 첫째, 그들은 선거에 훨씬 앞서 여론조사 하는 것을 중단했고, Truman은 선거 전 마지막 며칠 간 사람들에게 열기를 북돋우는 데 특히 성공했다. 둘째, 실시된 전화 여론조사는 Dewey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1948년에 전화기는 전반적으로 더 부유한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Dewey는 엘리트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명예스러운 ‘Chicago Tribune’의 제1면 큰 표제를 초래한 선택 편향은 우발적이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시류에 편승하도록 조장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선택 편향의 위험과 잠재적 힘을 보여준다.

**어휘** ➡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selection bias 선택 편향 result in 그 결과 ~가 되다 trounce 완파하다  
statistician 통계전문가 in advance of ~보다 앞에 household 가정 infamous 악명 높은, 오명이 난  
(=notorious) accidental 우발적인 stakeholder 이해 당사자, 주주  
hop [get] on the bandwagon 시류에 편승하다, 인기있는 쪽에 가담하다  
wag the dog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이 용어는 선물(꼬리)이 현물(몸통)시장을 좌  
지우지하는 현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 (wag 흔들다)  
instigate 부추기다 underdog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약자[약체]  
swing voter 부동층